

연수 국가: 인도

연수기간: '20. 1. 5. ~ 1. 10.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단양군의의회

목 차

I. 공무국외연수 개요

1

II. 주요 일정

2

III. 방문국(방문지역) 개요

3

IV. 공식기관 방문 활동

4

① 바라나시 시의회

② 주인도 한국문화원 방문

V. 소 회 (所 懷)

8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I. 공무국외연수 개요

연 수 국: 인도

연수 목적:

- 공무 여행국 인도의 지방행정 및 의회제도 등 타국 사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비교분석을 통해 본 지역의 의정활동에 반영
- 문화적·역사적·인문학적인 국제적 견문확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연수 기간: 2020. 1. 5.(일) ~ 1. 10.(금) / 5박 6일

보고서 작성: 강미숙 의원

연수 대상자

소 속	직	성 명	성 별	비 고
단양군의회	의 원	강 미 숙	여	부의장
	행정7급	이 길 환	남	직 원

Ⅱ . 주요일정

일수	방문지	상 세 일 정
1일차 1/5 (일)	인천	■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 델리 국제공항 도착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1/6 (월)	델리	[시설견학] 아그라성, 타지마할 인도 최고의 관광문화 유산 관리실태 견학
3일차 1/7 (화)	델리	■ 델리공항 출발
	바라나시	■ 바라나시 도착
		■ 인도의 생명줄 갠지스강 시찰
		■ 힌두교 전통의식 행사 아르띠뿌자 관람
	[공식기관 방문] 바라나시시 의회 - 인도 지방-정부 역학관계 및 지방의회 역할 비교견학	
4일차 1/8 (수)	바라나시	■ 불교성지 사르나트 유적군 견학
		■ 불교유적지 차우간디스투파
		■ 바라나시 공항출발
	델리	■ 델리 공항 도착 [공식기관 방문] 주인도 한국문화원 - 한국·인도 간 문화교류 내용 청취 및 시설견학
5일차 1/9 (목)	델리	■ 1차 세계대전 인도군 위령탑 인디아게이트 견학
		■ 인도인의 아버지 간디생가 견학
6일차 1/10 (금)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Ⅲ. 방문국(방문지역) 개요

□ 방문국(인도) 정보

구 분	대한민국	인 도
수 도	서 울	델 리
면 적	99,720km ²	3,287,263km ²
인 구	5,143만명	13억 8천만 4,385명 (불법이민자까지 약18억명)
1인당 GDP	2만 8,338\$ (세계28위)	2,135\$ (세계145위)
언 어	한국어	힌디어, 영어 100개이상의 언어
인 종	한민족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몽골족
정 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종 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힌두교(80%), 이슬람교(13.4%) 기독교, 자이나교, 불교 등

IV. 공식 활동

□ 기관 방문 및 현지 견학

○ 방문개요

- 일 시: 2020. 1.7(화)
- 장 소: 바라나시 의회(의회사무실에 모두 들어갈 수 없어 넓은 장소인 관제실로 안내)
- 주요내용

시에서는 2,100개의 CCTV카메라로 도시를 통제(화재, 교통, 범죄, 쓰레기 등)한다고 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리 하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조치, 법규를 안 지키면 카메라로 인식하며 범칙금을 받도록 한다고 했다.(관제센터 예산 년18억정도)

- 바라나시 인구 : 400만 (힌두교, 불교성지순례 도시)
- 의원 25명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제소에서 측정하여 실태 파악을 하며 나무심기를 권장하고 2019년에 1만 그루를 식재)

※ 시정목표: 스마트시티 만들기(3년 전 부터 계획, 실천)

IT회사 지원하여 인프라 구축에 노력



바라나시 시의회 의장과함께



바라나시관제소

○ 방문 개요

- 일 시: 2020. 1. 8.(수)
- 장 소: 한국문화원
- 주요내용: 대사관의 문화업무를 담당
 - 무역교류: 수출150억불, 수입50억불(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훨씬 크지만 이것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인도사람들이 한국을 호의적으로 생각할지 불안)
 - 주재기업: 700개정도(인도에 기업이 들어오기 많이 어렵고, 들어오면 대박이다.)
 - 교민: 1만명 정도로 대부분 주재원가족
 - 문화활동: 인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어강좌, 태권도, 전래놀이, 사물놀이, K팝, 한국어퀴즈대회개최(삼성의 지원)
- ※ 문화원장은 우리나라 지방과의 문화교류를 원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인도주재 한국문화원입구



문화원 활동을 설명하는 문화원장



인도 청소년들의 사물놀이공연



충북시군의회의장단과 한국문화원직원들

○ 견학 개요

- 일 시: 2020. 1. 6.(월) ~ 1. 9.(목)
- 장 소: 아그라성, 타지마할, 올드델리, 사르나트, 박물관
차우간디 스투파, 갠지스강, 인도게이트, 간디생가 등
- 주요내용:

인도 북부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아그라성이나 타지마할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만큼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무굴제국의 샤 자한 황제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극진하여 1564~1658년대 22년 동안 그 무덤을 지었다는 '타지마할', 낮은 구름 위에 살포시 떠있는 듯 한 우유빛 대리석의 간결하면서 우아함의 극치를 보는 듯 했다.

22년동안 백성이 겪은 고초는 어떠했을까? 우리나라나 남의 나라나 위정자의 고집으로 국민들은 험벗고 힘들게 하면서 대단한 건축물을 남기지만 몇 백 년 뒤의 후손들에게 황제가 될 것이란 예측을 못했을 것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하루에 7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니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대단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와 달랐다. 그 유명한 곳에 가는 길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비포장도로에, 도로가에는 소와 개, 험벗은 이들이 맨땅에 앉아 오가는 차들을 보고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고무통에 소량의물로 목욕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갠지스강의 가트를 걸으며 힌두인이 목욕하는 모습, 화장하는 모습, 보트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소원을 비는 꽃접시에 촛불을 파는 아이들이 서로 제 것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낸다. 갠지스강을 통해 태어남과 죽음이 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보여 지는 곳이다.

올드델리는 힌두교사원, 이슬람사원, 사찰, 기독교 교회등 다양한 종교의 예배당이 있고, 우리나라 남대문시장을 연상케 하는 시장골목이 뺨뺨한 사람들로 일행을 놓칠까 앞만 보고 열심히 가게 했다. 그런데도 곳곳에 눈에 들어오는 삼성, LG 간판이 가슴을 뿌듯하게 했다.

그 중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간디생가, 녹야원으로 간디생가는 상해의임시정부 공관에 김구선생 숙소를 생각나게 하여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인도의 성자 '간디'라고 모두에게 추앙받는 인물로 생각했는데, 영국에서 해방당시 간디가 일부의 이슬람 사람들을 인도에 같이 살도록 해서 지금 인도가 힌두교와 이슬람교인들 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며 간디의 판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녹야원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다섯 제자에게 처음으로 설법한 곳 (초전법륜지)으로 불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불교의 발생지 이면서 현재는 불교인구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그라성



갠지스강에서 수행자가 되기위한 의식



타지마할



사람과 함께하는 소

V. 소 회 (所 懷)

의회에서 연수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 일부 주민이나 언론에서 의원 연수라 하면 국내 건, 국외 건,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부담을 안고 떠나게 된다.

이 번 인도 연수도 마찬가지로, '아이와 함께 가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용기를 내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연수'에 함께하기로 했다.

1월 5일 9시간의 비행 끝에 인도의 델리에 도착했다. 인도는 마치 우리나라의 1950년대~2020년대가 공존하며 지내는 것 같았다. 아직도 길가에 거적대기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영국에 지배받다가 해방되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폐허가 된 주택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곤 했다. 힌두민족주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하층 카스트출신인 '모디' 총리가 탄생하면서 인도에 카스트제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의식 깊숙이 카스트 제도는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모든 인구를 합하면 인도는 약18억 명이 된다고 한다. 이 중 인도를 지배하고, 끌고 나가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정도, 이 2%의 지도자들(?)에게 나머지98%의 국민은 불만이 없고, 실업인구가 많은 것도 당연시 여기며 가족끼리 상호의존적이고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한다. 따뜻한 기온으로 농산물이 풍성하니 그 중 60% 정도만 해도 국민 모두 먹고 살 수 있으니 굳이 저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먹으면 그만이고, 길에서 소와 개, 그들과 더불어 흙먼지를 덮어 쓰기도 싫은 표정이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움직이는 교통 수단은 실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였다. 도로에는 차선은 거의 없고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버스, 승용차, 택시, 리샤(사이클릭샤, 오토릭샤)들은 각기 다른 소리의 경적을 신호로 마구 끼어들고 앞서 가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질서대로 움직였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사이클릭샤는 자전거에 좌석을 두 개 만들어 이동하는 단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료가 2Km에 1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우리 단양의 교통체증은 이에 비하면 너무 호화롭고, 여유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의 근대화 정책은 3번에 걸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100여년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7년 해방되어 근대화 정책을 펼쳤으나 경제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1년에 7천만 명씩 증가하는 인구 때문이라고 했지만 1990년대부터 경제자유화 이후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1950년 대~1970년 대 우리나라를 연상케 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시절의 우리 주거문화와 닮은 모습이 인도에 현재 존재하고, 인구 증가로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며 산아제한을 외치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온 나라가 인구 절벽에 근심을 떨칠 수가 없는 하루하루가 연속되고 있는 현실에 갑자기 인도의 미래가 궁금했다.

약 18억의 인구, 지금 인도는 IT 산업에 주력을 쏟는다고 한다. 버닝맨의 두 청년 '래리 페이지, 세이 게이브린'이 찾고 싶은 정보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유명한 구글이 탄생 했듯이 인도의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을 파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쟁을 치르며 함께 꿈꾸며 고민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인도가 중국을 앞서지 않을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지금의 불편함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비닐제품, 스티로폼, 코팅한 봉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값비싼 물건을 구입해도 우리나라 봉어빵 담아주는 종이봉투에 넣어주었다. 뭔가 잔뜩 준비하는 듯 한 느낌에 말끝마다 IT산업육성을 얘기하는 것이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정복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어령 박사의 말이 생각났다. 「“인공지능 이라는 말에 올라타라.” 말과는 경주를 하면 지지만 그 말에 올라타면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이미 IT강국인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의 메시지이다.

의원의 신분으로 어느 곳이든 연수를 가게 되면 출발부터 도착까지 발 딛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 스치는 모든 것이 단양과 연관짓게 된다. 단양이라면? 단양을 이렇게 만들면? 그런데,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들을 보며 이것이 인도다움이고, 우리 단양은 단양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단양의 발전을 위하여 '상생의 힘을 믿고 같이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